

5. 31

(금요일)

세계의 역사 안에
임하는 평화

사사기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처치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감탄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힘과 이념으로 대치하고 전쟁하는 동안, 어린이들과 약한 이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포화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의지하여 평화를 간구합니다.

탐욕과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과 희망의 산으로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울부짖음과 탄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애통함을 들어 주시어 저희 모두 평화와 정의의 전령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되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1

(토요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에베소서 1:22-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 가는 선교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널리 펼치는 증인공동체입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일상이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단법인 웨슬리나눔재단

WESLEY NANUM

사단법인 웨슬리나눔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정기부금 모금 공익법인으로 평신도들의 기부를 받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과 국내·외 긴급복구 및 구호와 저개발국가 문맹퇴치운동 및 교육사업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웨슬리나눔재단에 함께해주세요.



CMS 후원하기
휴대폰으로 QR을 찍어 보세요

“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

| 후원계좌번호 |

우리 1005-104-132198 (사단법인웨슬리나눔재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사회평신도국(내) (☎ 02-399-4349)

| 홈페이지 |

wesley-nanum.or.kr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제46회

평신도 주일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기 도 주 간

2024. 5. 27 월 - 6. 1 토

평신도 주일

2024. 6. 2 주일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주일을 모든 감리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회심주간과 6월 첫째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 주회 지방 사회평신도부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5. 27
(월요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정

디모데후서 1:3-5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의 가정이 다른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어른들이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들이 존중받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육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28
(화요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2-4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저희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을 통하여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만연된 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인도자 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29
(수요일)

희망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일터

골로새서 3:23-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을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도 저희의 삶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오늘의 삶의 현장가운데 보내주시고 각자가 맡은 일들을 수행해 가며 살아가 수 있도록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희의 일터에서 달란트를 발휘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매를 위하여 진실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정직함과 공정함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을 통하여 거둔 결실을 주를 위하여 기쁘고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까지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30
(목요일)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리는 초록빛 은총

시편 8: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꽃과 새와 하늘과 바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 때를 따라 주시는 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더욱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청지기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욕망과 탐심으로 주님의 창조세계를 훼손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자연의 생명을 풍성히 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초록빛 은총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